

미국에서의 한국춤 전승 현황과 특성 연구

유미희*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미국에서의 한국춤 전승 현황 | 참고문헌 |
| III. 미국에서의 한국춤 전승의 특성 | Abstract |

I. 서론

한국춤은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겨있는 무형문화유산이다. 세계화 시대 무형문화에 대한 관심은 각국의 문화적 전통과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유네스코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해 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이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보호를 위해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현재(2024)까지 22종목이 등재되었다. 즉,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2008)¹⁾, 판소리(2003/2008), 강릉단오제(2005/2008),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줄타기(2011), 택견(2011), 한산모시짜기(2010),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연등회(2020), 그리고 한국의 탈춤(2022)이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해외에서 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실태와 전승 현황에 대한 학술조사연구사업을 2003년부터 진행하였다.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예술, 민속음악, 그리고 민속무용 등의 전승 실태를 조사해 보고 한 재중 교포의 무형문화재(2003),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공연예술과 예술단체 전승 종목 등을 수집한 해외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사업(2014)이 그 일환이다. 그 외 하와이 및 미 서부지역의 전통적인 공연예술(무용, 음악, 의학, 민간 신앙 등)을 수집하여 정리한 해외전승 무형문화유산 실태조사연구(2014)도 진행되었다.

한국춤 관련 연구는 이같이 해외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하나로, 근대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춤과 한국창작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terpsi2001@ginue.ac.kr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무형문화유산소개/무형문화유산-협약/, 2024. 10. 05>.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문화재청 주관 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중국의 한국춤 연구는 최해리(2004)와 김채원(2011)의 연구가 있으며, 일본의 한국춤 연구는 김채원(2007)과 이지선(2016)의 연구가 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한국춤 연구는 양민아(2008, 2014)와 안상경, 이병조(2013a, 2013b)의 연구가 있으며 미국의 한국춤 연구는 장윤수(2007)와 유미희(2015)의 연구가 있다. 최해리(2004)는 2002년~2003년까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 조선족 자치구인 연변 춤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조선민족무용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김채원은 문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재일조선 사회의 조선무용을 고찰하였다. 즉,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산하 기구인 금강산가극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조선무용이 재일조선 사회에 전수되는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지선은 2000년~2014년까지 일본 관동지방에서 열린 한국전통예술 공연현황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탐색하였다. 즉, 15년 동안 520건의 공연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통예술공연은 연행목적에 따라 한국전통예술단체 공연과 외국예술과의 교류공연으로 나누어지며, 한일교류공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전통예술공연의 절반 이상이 재일코리안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한국전통문화전파에 재일코리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김채원은 재중, 재일 조선인의 무용문화에 북한춤이 전파된 양상을 고찰하였다. 최승희가 체계화한 조선무용기본이 무용의 기초훈련으로 학습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조선족 자치구는 연변대학과 중앙민족대학의 무용학과 설치를 통해 한국춤이 체계적인 무용교육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양민아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고려인들의 한국 전통춤 계승 현황과 그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는가 하면 1920-30년대 러시아 연해주 한인들의 공연예술활동이 연해주 한인사회와 한국 사회 춤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안상경, 이병조는 2012년 해외 전승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의 하나로 수행된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타슈켄트시(Toshkent city)와 타슈켄트주(Toshkent region) 4개의 집단농장에 살고 있는 고려인,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공동체의 한민족 민속문화의 전승 양상을 현지 조사하여 민족문화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장윤수는 미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의 동포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공연 및 전시활동,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 현황을 조사하였다. 미술, 음악, 연극, 영화인과 함께 중국의 무용가 2명, 미국의 무용가 8명, 카자흐스탄의 무용가 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공연활동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해외 무용가들은 모국과의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유미희는 미국 서부지역 한인들의 한국춤 전승 양상을 고찰하여 해외 무형유산으로서의 한국춤 전승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외 한국춤 전승현황을 고찰하여 해외 한국춤 문화의 전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023년도 기준 재외동포현황에 의하면 해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37%)이다.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사회인 미국의 한국춤 연구는 한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해외의 한국춤전승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2014년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물 이후에는 그 본격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24년 현재 미국 서부지역뿐 아니라 중서부, 남부, 북동부를 포함한 미국 한인사회 전반적인 한국춤 전승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미국에서의 한국춤 전승 현황과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장윤수의 연구가 미국 재외한인 무용예술단체 현황뿐 아니라 무용예술가의 공연활동과 네트워크 교류활동을 탐색하여 미국 재외한인 문화예술 현황을 분석하였으나 이는 2005년에 수행된 조사

결과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그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뉴욕(New York)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이며, 조사 대상에 있어서도 장르적 의미에서의 한국춤 무용가와 현대춤 무용가를 모두 포함하여 통계적 비율만 단편적으로 산출하고 있어 한국춤 전승 양상, 전승 종목 및 전승단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르적 의미에서의 한국춤에 한정하여 미국 서부지역의 한국춤뿐 아니라 중부, 남부, 그리고 동부지역을 모두 포괄하여 미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한국춤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한국춤 보존과 전승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 서부 3개 도시,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시애틀(Seattle), 하와이(Hawaii), 중서부 1개 도시, 시카고(Chicago), 남부 1개 도시, 애틀랜타(Atlanta), 그리고 북동부 2개 도시, 뉴욕(New York)과 뉴저지(New Jersey)에서 활동하고 있는 7개의 한국무용단체이다. 각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인사회가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의 추천과 자문을 통해 한국춤 전승 단체를 선정하고 각 단체의 단장을 심층 면담하였다. 심층면담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논문, 단행본, 신문, 기사를 비롯한 인터넷 자료를 통해 전승 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줌(Zoom) 미팅을 진행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무용학습이력으로 출입문 동기 또는 경로, 사사한 스승, 무용단 창단 시기와 무용단 활동, 공연 종목과 종목 선정의 기준, 참여 행사, 무용단의 특징, 그리고 한국춤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비구조화 또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로 60분-80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전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미국에서의 한국춤 전승의 일반적 현황과 함께 각 주요 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춤 전승을 선정된 한국무용단체의 활동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분석 결과 나타난 미국의 한국춤 전승의 특징을 제시하고, 셋째, 결론에서는 현지 한국춤 전승자의 제안을 통해 해외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한국춤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II. 미국에서의 한국춤 전승

미국의 한국춤 전승은 크게 서부, 중서부, 남부, 북동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서부지역으로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하와이, 중서부 지역으로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남부지역으로는 애틀랜타, 그리고 북동부지역으로는 뉴욕과 뉴저지가 있다. 다음 <표 1>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한국무용단체 현황으로 현지 문화예술관련 전문가와 무용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 등 인터넷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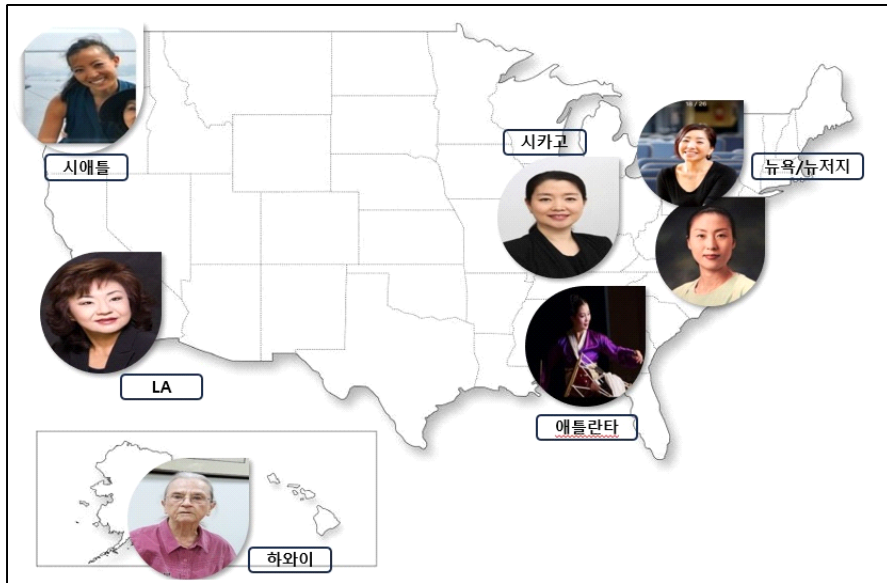
〈표 1〉 미국의 한국무용단체 현황

순번	단체명	지역	단장명	단장 출생연도	무용단 창단 연도	무용단 활동 년 수
1	한국음악무용예술단	로스엔젤레스	김동석	1945	1983	40이상
2	김응화무용단	로스엔젤레스	김응화	1955	1980	44
3	이정임 무용단	로스엔젤레스	이정임	-	1994	28
4	고수희무용연구소	로스엔젤레스	고수희	-	1988	35
5	재미국악원	로스엔젤레스	최순희 원장: 이미자	-	1973	51
6	아리랑민속예술단 권려성무용원	라스베이거스	권려성	1932	1964, 2002	40
7	임관규무용단	로스엔젤레스	임관규	1960	1996	10이상
8	유희자국악무용연구소	로스엔젤레스	유희자	1950	1999	20이상
9	강대승두레패 사물놀이	로스엔젤레스	강대승	-	1985	15이상
10	서북미한국예술원	시애틀	김에스터	-	1989	10이상
11	셋별한국문화원무용단	시애틀	최지연, 최시내	1957	1985	39
12	한라함무용연구소	하와이	메리 조 프레슬리	1934	1950	74
13	명우단	하와이	캐린 사와이	-	1958	20이상
14	시카고한국무용단	시카고	이애덕	1966	2009	15
15	한국전통예술원	뉴저지	정혜선	1970	1999	20이상
16	우리가락한국문화예술원	뉴저지	강은주	1967	1998	26
17	한국문화원	애틀랜타	양현숙	1963	2013	11
18	이송희무용단	뉴욕	이송희	1958	1997	27

위의 〈표 1〉에 의하면 10년 이상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단체는 18개 정도이다²⁾. 라스베이거스와 LA를 비롯한 서부지역 9개, 하와이 2개, 시애틀 2개, 시카고 1개, 애틀랜타 1개, 뉴저지 2개, 뉴욕 1개이다. 이 중 2024년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7개이다. 다음 〈그림 1〉은 각지역별 한국무용단을 이끄는 단장들의 분포 현황이다. 7개³⁾의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한국춤 전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한국춤 관련 단체는 개인적 연유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2024년 현재 각 도시에서 최소 10년 이상, 20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개를 선정, 지역별 전승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그림 1〉 미국 주요 도시 한국무용단 단장 분포 현황

1. 서부지역의 한국춤 전승

미국 서부지역으로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하와이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속한 LA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할리우드를 비롯한 영화산업과 다양한 공연예술이 풍부한 미국의 문화적 상징이 되는 곳이다, 이 지역에는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그리고 언론사 관련 한인 단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시애틀은 워싱턴주에 속해 있는 도시로 미국 최고의 금융중심지이다. 해안항구 도시로서 시애틀에는 국제적인 의류 소매 회사인 노드스트롬(Nordstrom)의 본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일본 닌텐도(Nintendo) 게임 생산자 닌텐도의 미국 본부를 두고 있다. 워싱턴 주 한인들은 대부분 시애틀 교외 지역, 터코마(Tacoma), 린우드(Lynn wood)에 거주하고 있으며, 페더럴웨이(Federal Way) 시에는 터코마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페더럴웨이는 미국 최초로 한인 경찰국장이 임명된 도시이기도 하다.

하와이는 태평양섬에 있다. 하와이는 본래 폴리네시아(Polynesian) 원주민의 땅이었으나 미국의 식민지가 된 후 1959년 미국의 50번째 마지막 주로 편입되어 하와이주가 되었다. 하와이는 하와이섬(Hawaii Island), 오아후섬(Oahu Island) 등을 비롯해 8개의 섬과 100여 개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와이 한인타운은 케아모쿠(Keeaumoku)와 카피올라니(Kapiolani)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하와이는 미국 이민 역사상 공식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한인타운이다. 하와이 초기 이민자의 주요 목적지는 하와이였으며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한 한국인 이민자들은 농장 외에도 작은 상점과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수없이 많은 이민자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도록 한 동력을 제공한 곳이기도 하다.

미국 서부지역의 한국춤 전승은 LA 김응화 무용단, 시애틀의 셋별 한국문화원, 그리고 하와이 한라함 무용연구소(Halla Huhm Dance Studi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 김응화무용단(Kim Eung Hwa & Korean Dance Academy)

단장 김응화(Eung Hwa Kim, 金應花, 1955-)는 1980년에 무용단을 창단하였다. 4세 때 김문숙 무용 연구소에 입문하여 김문숙(1928-2023)으로부터 한국무용을,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는 박귀희⁴⁾(1921-1993)로부터 가야금 병창을 배웠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한영숙을 만나면서 살풀이춤과 승무를 배워 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였고 국악예술중학교에서 한국춤을 전공하였다. 국악예술중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한 김응화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원, 국악예술중고등학교 교사와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1970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인 2세 6-7명을 지도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1983년 제1회 무용발표회를 LA 주민들의 문화공간인 이벨(Wilshire Ebell)극장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김응화무용단의 현재 단원은 어린이와 성인을 포함해 60여 명이며 정기무용 발표회를 2-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1달에 평균 3회 정도의 공연에 참여하며 그간 LA 올림픽 개·폐막식, 아시아인축제, 한인 축제, 미주 이민 역사 120주년 기념공연 등 다양한 한인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공연 종목으로는 「부채춤», 「장구춤», 「진도북춤」 등 전통춤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창작춤도 일부 진행하고 있다.

김응화 무용단에서 주목할 점은 김응화단장이 해외명예전승자로 위촉되었다는 것이다. 해외명예전승자란 해외 거주자 중 한국전통의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분야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보유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 선양에 이바지하는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원자의 현지 활동상황, 보유 기술, 기능의 전문성, 연령 등을 종합 평가하여 2014년 ‘해외명예전승자’ 10명을 선정하였다. 미국의 해외명예전승자로 박수연(살풀이춤 및 승무), 강대승(강령탈춤), 김경희(승무), 김응화(태평무), 지운자(가야금)를 선정하였다. 김응화는 태평무 명예전승자로 한영숙류 태평무를 전승하고 있으며 한영숙춤보존회 미주지회장, 미주 한국무용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응화는 한국춤의 진흥을 위한 한국 정부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의상, 악기 구매를 위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미국의 한국문화원과 연계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한국춤의 보급과 확산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나. 셋별 한국문화원무용단(Morningstar Korean Culture Center)

셋별 한국문화원 무용단은 시애틀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용단이다. 1985년에 개원한 셋별 전통예술단에서 시작되어 2003년 셋별 한국문화원으로 개명되었으며 현재는 셋별 한국문화원무용단(예술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셋별 전통예술단의 초대 단장은 최지연(1957-)이다. 한국무용을 전공한 최지연은 결혼 후 목회자인 남편과 함께 1983년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노스웨스트 대학(Northwest University)에서 성악, 지휘, 선교,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그녀는 문화선교 비전을 지닌 남편의 권유에 따라 전통예술의 보급과 선교를 위해 전통예술단을 창단하였다. 최지연은 한국무용가 김백봉, 최현, 문일지, 그리고 박금슬에게서 한국춤을 사사하였으며 피아노, 성악, 합창지휘 뿐 아니라 가야금, 장고, 판소리 등의 전통음악 연주에도 매진하였다. 셋별 전통예술원은 교회 주일학교 어린

4) 박귀희(朴貴姬, 1921-1993):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 병창 전승자, 1960년 국악예술고등학교 설립.

이 4명을 시작으로 한국무용단을 만들었으며 이후 한인 2세, 혼혈인, 입양 한인들을 모아 ‘셋별전통예술단’으로 활동하였다. 다양한 전통춤과 전통음악을 공연하며 한국문화 전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셋별 전통예술단은 2003년 셋별 한국문화원이 개원되면서 원장으로 최지연, 그리고 예술단 단장으로 최지연의 딸 최시내가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고 무용단의 안무 및 지도는 이후 현재까지 주로 최시내 단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시내는 이민 2세대이며 대학에서 동양학과 피아노를 전공하였으며 미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음악재단의 음악프로그램감독으로 활약한 바 있다. 최시내는 현재 셋별 한국문화원 무용단의 한국춤 안무를 비롯하여 무용음악 작곡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나가고 있다.

셋별 한국문화원 무용단의 구성은 어린이부터 성인(10세-44세)에 이르기까지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단 이래 39년 동안 미국 내 120개 도시, 한국순회 19회, 유럽(Europe) 순회 2회, 아프리카(Africa) 순회 2회, 오세아니아(Oceania) 2회 등 세계 29개국, 총 2,200회 공연을 기록하고 있다. 이 무용단은 1989년부터 한국문화의 ‘나래’ 아래로 교포, 입양아, 그리고 외국인을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선교하는 자체 공연 ‘나래’를 매해 공연하고 있다. 문화선교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만큼 순복음교회 4회(수요예배, 철야 예배회), 명성교회 2회(99년 수요예배 때 1시간 30분 공연 및 간증, 2006 영어예배 1시간), 순복음인천교회7회(97년, 2002년), 주안 장로교회 2회(90년, 2004년), 성민교회, 왕성교회, 임마누엘교회, 서교동교회, 전주 바울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두레교회, 부산 세계로 교회 등 여러 교회와 지역 극장에서 공연 및 간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창작무용극 ‘에스더’, 「사진신부의 꿈」, 「무지개 마음」, 「탕자의 꿈」, 「한국의 혼」, 「심청」을 비롯해 「생명의 우물가」, 「열처녀」, 「그 옷자락 만질 때」, 「기쁨의 그날」, 「숲」, 「정의의 검」 등의 창작 무용, 그리고 「태초에...」, 「비의 변주곡」, 「우주의 하모니」, 「한마당」 등의 타악기 작품 등 춤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며 한국춤과 국악을 예배에 접목하는 기독교 토착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 한라함 무용연구소(Halla Huhm Dance Studio)

한라함 무용연구소⁵⁾는 2대에 걸쳐 한국춤을 전승하고 있다. 1대 단장으로 배한라(Halla Pai Huhm, 1922-1994, 본명 배용자:裴龍子)가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현재 미국인 메리조 프레슬리(Mary Jo Freshley, 1934-)가 한국춤을 계승, 보급하고 있다. 한라함 무용연구소는 한국무용역사에서 중요한 근대무용가 배구자의 춤 전승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지로 주목할 만하다. 배한라는 근대한국무용가 배구자(裴龜子, 1907-2003)의 여동생이다. 배구자는 신무용의 개척자임과 동시에 민족무용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악극이라는 연극 장르의 개화, 그리고 무대예술 전문극장인 동양극장의 건립을 통해 대중적인 연극이 자리매김하는데 토대를 마련해 준 역사적 인물이다. 배구자는 경남 양산에서 출생하여 미국 산타바바라에서 생을 마감했다. 12세에 조선에 공연은 쇼우교구사이텐가스(松旭齊天勝)의 덴가스곡예단(天勝曲藝團)에 입단하여 무용, 음악, 연극, 가극, 곡예 등 다양한 기예를 익혔고 1929년 배구자 무용연구소를 개소하는가 하면 악극단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가무극 형식의 공연을 펼쳤다. 배구자는 악극과 레뷰무대에 중점을 두었고 조선춤의 무대화에도 관심을 가져 민속춤을 새로운 형식으로 창작하여 발표하였다.

5) 한라함 무용연구소의 메리조 프레슬리 단장은 심층면담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신문, 기사, 인터뷰 및 관련 자료와 동영상을 바탕으로 조사, 정리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 「아리랑」(1928), 「물깃는 처녀」(1931), 「방아타령」(1931) 등이다. 배우자는 1935년 최신식 동양극장을 설립하였고 1950년대 일본계 미군과 결혼하면서 일본,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배한라는 배우자의 여동생이다. 부산 출생으로 동경여자대학을 졸업한 배한라는 5세에 일본에서 배우자로부터 춤과 음악을 학습하였고 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으로 귀국한 후 일본과 한국에 오가며 다양한 한국춤을 추었다. 1949년 한국계 미국인 존 함(John Haim)과 결혼 후 하와이로 이주하였고 1950년 한라함 무용연구소를 개설하였다. 배한라는 1959년부터 1970년대까지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에서 한국춤을 지도하였고 1983년에는 한국에 오가며 청주교육대학교에서도 한국춤을 지도하였다. 배한라는 궁중무용가 김천홍, 그리고 무당 이지산과의 협업으로 하와이에 다채로운 전통춤을 지도 및 공연하였고 영문판 서적, 『굿, Gus』(1980)을 출판하여 한국전통예술을 외국인에게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4년 한라함 타개 이후 그녀의 유지에 따라 무용연구소 운영과 전통문화 사업진흥을 위해 한라함 재단(Halla Huhm Foundation)이 설립되었다.

메리조 프레슬리는 미국 오하이오주 태생으로 1959년 오하이오 주 볼링그린주립대학교(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여성체육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그녀는 1962년 하와이 마미아극장(Mamiya Theater)에서 열린 배한라의 춤에 매료되어 한국춤에 입문하였다. 메리조 프레슬리는 1962년부터 1994년까지 한라함 무용연구소에서 한국춤을 수련했고 1963년 배한라가 초빙한 김천홍에게 궁중무용 및 봉산탈춤 등을 사사했다. 1972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에 오가며 김천홍, 이흥구(궁중무용), 김병섭(설장고), 김묘선(살풀이, 승무) 등에게 전통춤을 사사했다. 메리조는 1973년부터 1994년까지 한라함 무용연구소 전수조교를 맡았으며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한라함 무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하와이대학교 연극무용학과 한국춤 강사를 겸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한라함 재단 대표로서 김천홍 장학기금사업을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라함 무용연구소의 전승종목은 다음 <표 2>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 한라함 무용연구소 전승종목⁶⁾

유형	종류
궁중정재	검무, 무고, 무산향, 선유락, 아박무, 포구락, 춘앵전, 향발무
민속춤	강강수월래, 봉산탈춤, 삼고무, 부채춤(선무), 북춤, 장고춤, 진도북춤, 진주검무, 소고춤, 상모놀이, 살풀이춤, 승무, 오고무, 입춤, 학춤(설무학, 학무), 화관무
종교의식춤	바라춤, 씻김굿
창작춤 (신무용 계열)	군밤타령, 꼭두각시, 노들강변, 노인춤, 도라지타령, 무당춤, 선무당춤, 신랑색시, 아리랑, 알쏭달쏭, 오방기, 천무당
전통 타악	알로하 사물놀이, 삼도설장구가락

한라함 무용연구소는 궁중정재, 민속춤, 종교의식춤, 신무용계열의 창작춤과 전통 타악 등 다양한 한국춤을 전파하고 있다. 한라함 무용단의 구성은 한인교포 2,3세, 한인 이민 1세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하와이 원주민 사이의 혼혈인, 그리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한인 등 국적, 나이, 성별, 직업 등 다양

6) 유화정(2013)의 「미주 하와이 주 한라함 무용연구소의 춤문화 연구」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였다(p. 43).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구성원 대부분은 이중국적으로 개방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한라함 무용단이 1953년부터 외부에 공개한 레퍼토리는 80종 이상이며 코리안 페스티벌을 비롯해 아시안 페스티벌, 국경일 행사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메리조는 2024년 5월 23일 국립 국악원 풍류방에서 열린 '일이관지(一以貫之)-조선춤방2'에서 한국춤을 공연하였다. 이민 3세 한국계 미국인 전수생 2인과 함께 근대춤의 선구자였던 배우자의 신민요춤 「아리랑」, 1960년대 정서를 담고 있는 「노들강변」, 그리고 하와이로 건너간, 디아스포라 무용가였던 한라함이 1970년대에 한국에서 학습한, 한라함의 정서와 한이 담긴 「한라함류 아쟁살풀이」를 선보여 근대춤의 선구자인 배우자의 춤이 배한라, 그리고 메리조 프레슬리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중서부지역의 한국춤 전승

가. 시카고 한국무용단(Chicago Korean Dance Company)

미국 중서부는 미국의 전형적인 도시로 평가된다. 네브라스카(Nebraska)주,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 미네소타(Minnesota)주, 미시간(Michigan)주, 그리고 일리노이(Illinois)주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주가 이에 속한다. 중공업과 농업이 발달한 도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중 시카고는 일리노이주에 속한 도시로 미 중서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도시이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뉴욕에 뒤이어 마천루가 많은 지역으로 '시카고 불스(Chicago Bulls)', '시카고 컵스(Chicago Cubs)'와 같은 인기 있는 농구팀과 야구팀의 연고지이다.

시카고의 한국춤 전승은 시카고 한국무용단이 대표적이다.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이애덕(1966-)을 중심으로 2009년 창단되었다. 단장 이애덕(1966-)은 최현, 김매자, 김명숙에게 한국춤을 사사했다. 이애덕은 이화여대를 비롯하여 국민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다수 대학을 출강하였으며 늘휘무용단 대표로 활동하다가 2007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기존 교민사회에서 활동했던 무용단이 어린이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비전공자 중심의 무용단이었다고 한다면 좀 더 전문화된 무용단 설립을 위해 이애덕은 광고와 선발을 통해 한국무용전공자를 모집하여 2009년 5명으로 구성된 성인무용단을 만들었다. 2010년 어린이무용단과 한국무용원을 창설하였고 2011년에는 3학년부부터 12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구성을 확대했다. 전문가 중심의 창단공연을 기점으로 2년마다 1회 정기 공연을 해왔으며 2011년 청소년과 전문가가 함께 공연한 이후, 부설 기관을 마련하여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춤 교육도 시작하였다. 또한 이애덕은 한국전통예술 경연대회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2014년부터 매해 한국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전통문화예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무용과 국악, 두 분야로 나누어 유치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등 다양한 세대와 연령층을 아우르는 무용대회를 통해 시카고 지역에서 한국전통예술을 익히고 있는 차세대 주자들을 선정하여 상금과 함께 일리노이 주지사 명의의 봉사상을 수여하였다.

시카고 한국무용단 단원은 50여 명이며 한국춤을 전공한 전공인과 비전공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며 1달에 4~5회 공연하고 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아시아아메리칸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총영사관 주최공연, 브라질, 노르웨이, 니카라과, 온두라스 대사관 초청공연, 그리고 이태리 초청공연 등 다수의 해외 공연을 하였으며 시카고 주요 행사에

100회 이상 참여하였다. 공연레퍼토리는 「춘대옥축」, 「강강술래」, 「승무」, 「살풀이」, 「산조춤」, 「북춤」, 「부채춤」 등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이 있으며, 창작무용으로는 「승무」를 바탕으로 이민자의 외로움을 그린 「아리랑 연가」, 현대인의 고뇌를 묘사한 「내 안의 나」, 위안부 이야기를 담은 사회 의식적인 작품, 「잘 가 할머니」, 그리고 동화, 설화를 한국춤으로 창작하여 관객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는 창작춤, 「거울아, 거울아」, 「신데렐라」, 「홍부와 놀부」 등이 있다.

이애덕은 2019년 일리노이예술위원회(Illinois Arts Council)에서 뛰어난 예술가 10인에게 15,000달러의 지원금을 수여하여 지속적인 예술적 성장을 도모하는 파이널리스트 어워드(finalist award)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코로나 시대 이애덕은 “우리춤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영문 동영상 제작하여 한국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였다. 즉, 「살풀이」, 「태평무」, 「북춤」을 비롯한 민속무용, 궁중무용, 그리고 종교의식 무용 등 한국춤의 종류, 음악, 의상 등을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시기에도 한국춤의 보급과 확산에 매진하였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의 무용단 활동을 수록한 한국춤 관련 서적, 『Collage of Korean Dance』(2023)를 출판하는 등, 한국춤 보급을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춤문화의 진흥을 위해 이애덕은 자체 스튜디오의 확보와 강사진들의 고정적 지도비 지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3. 남부지역의 한국춤 전승

가. 애틀랜타 한국문화원(Atlanta Korean Culture Center)

미국 남부지역은 텍사스(Texas)주, 플로리다(Florida)주, 버지니아(Virginia)주, 조지아(Georgia)주를 포함하여 10개 주가 있으며 애틀랜타는 조지아주의 주도이다. 1960년대 애틀랜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Michael King Jr, 929-1968)의 출생지로 민권운동의 중심지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애틀랜타는 국제적 규모가 있는 도시로 변화되었으며 연방 조사국의 인구통계(2016-2020년)에 의하면 조지아주의 한인 거주자 중 혼혈 포함 7만 1,877명, 혼혈 제외 5만 8,33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애틀랜타는 조지아주의 여타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한 곳으로 한인 2세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IT, 투자은행, 컨설팅 등의 기업에 진출하면서 한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남부지역의 한국춤 전승은 애틀랜타 한국문화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양현숙(1964-)은 애틀랜타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5세에 무용을 시작하였으며 김매자, 정재만에게 한국춤을 사사했다. 2001년 애틀랜타로 이주하였고 한글학교 선생의 권유로 특별활동 시간에 한국춤과 난타를 지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규모가 확장되면서 2008년 한국춤 공연을 시작했다. 2013년에 정식 발족한 한국문화원은 현재 무용전공자와 타악기 전공자를 포함하여 15여 명의 단원을 두고 있으며 한국춤 학원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한국춤과 타악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생은 25여 명가량이다. 한국문화원 무용단은 1달 3회 이상 공연하며 2015년부터 1년 혹은 2년마다 1회 정기발표회를 하였다. 코리안 페스티벌, 아시아인 페스티벌, 한인사회 복지 관련 프로그램, 코카콜라(Coca-Cola Company), 마이크로소프트

7) 박재우(2022. 03. 21). 조지아서 한인이 가장 많은 도시는 애틀랜타?. *Atlanta 중앙일보*. <<https://www.atlantajoongna.com/31849/>, 2024. 11. 07>.

(Microsoft Corporation), 그리고 미국박물관 초청공연 등 다양한 행사와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채춤」, 「화관무」, 「법고춤」, 「입춤」, 「소고춤」, 「진도북춤」, 「오고무」, 「난타」 등을 공연하였다. 이 무용단의 특징은 타악 중심의 악기연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북동부지역의 한국춤 전승

미국 북동부는 미국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뉴욕(New York)주, 뉴저지(New Jersey)주,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뉴욕, 워싱턴DC(Washington D.C),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등 미국 최대 대도시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중 뉴욕과 뉴욕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이다.

뉴욕은 세계적인 거대 도시답게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이며, 예술, 패션, 미디어 등 많은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뉴저지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인접한 도시로 대다수 사람이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뉴욕에 직장을 두고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 유학생 40명으로 시작된 뉴욕 한인사회는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주 정착지가 되었고 뉴욕을 비롯한 뉴저지 일대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북동부지역의 한국춤 전승은 뉴저지에 근거를 두면서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한국전통예술원과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가. 한국전통예술원(Hea Sun Jung Korean Arts Academy)

한국전통예술원은 1999년에 개원한 것으로 정혜선(1970-)이 원장을 맡고 있다. 정혜선은 박소림(살풀이춤), 정재만(한영숙류), 박숙자, 박수연(이매방류)에게 한국춤을 사사했으며 중학교 무용반에서 무용을 시작하였다. 대학 졸업 후 삼성무용단 단원으로 활약하였으며 1997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학생 1, 2명을 지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규모를 넓혀가 1999년 무용단을 창단했다. 정혜선은 2001년 메트로폴리탄무용협회 한국무용분과위원장으로 활약했으며 2009년에는 한국관광공사 초청 세계무역박람회 공연을 하였고 2010년에는 한국전통예술원 제1회 무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사단법인 미주국악진흥회 최고지도자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뉴저지 소재 아콜라 한글문화학교(Arcola Korean Institute) 무용교사와 뉴저지상록회 무용강사를 맡기도 했다. 한국전통예술원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대표부 설날 축제공연에 참가했다. 한국전통예술원 무용단 단원은 30여 명이며 1달에 2회 정도 공연하고 있다. 공연종목은 주로 「살풀이」, 「부채춤」, 「삼고무」, 「태평무」, 「장구춤」, 「진도북춤」 등 18개 이상의 전통춤이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사회행사, 국제페스티벌, 아시안 페스티벌과 코리안 퍼레이드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정혜선은 한국문화와 춤의 진흥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자체 수입이나 자비로 이루어지는 악기와 의상 구입은 무용단 운영의 위축과 한계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역설하였다.

나.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Woorigarak Korean Cultural Arts Center)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은 1998년에 개원했다. 원장 강은주(1967-)는 6세에 무용을 시작하였으며 학무봉, 송수남, 정재만에게 한국춤을 사사했다. 1994년 미국으로 유학하여 뉴욕대학원(NYU)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결혼 후 뉴저지로 이사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1998년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을 설립하여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0여 명 내외의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2015년 강은주는 제15차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에서 「태평무」로 명인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뉴저지주 정부 그랜트 3천 달러를 지원받아 「태평무」를 전수하기도 했다. 또한 「태평무」 전수를 위해 현대음악으로 「태평무」를 보다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보이드 리사이트 홀(Boyd Recital Hall)에서 진행된 아시안 축제 행사에서 발표하여 관객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2017년 한국문화축제와 아시안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뉴저지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인 전통춤 강습회 및 워크숍 등에서 한국무용, 「사물놀이」, 「탈춤」 등 한국문화보급에 힘쓰고 있다.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 무용단은 한국관광공사 초청행사, 코리아커뮤니티 관련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에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공연 종목은 「검무」, 「태평무」, 「부채춤」, 「꽃바구니 춤」, 「난타」 등이다.

강은주는 한국춤 진흥을 위해 물질,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수없이 반복되는 공연에 활용할 수 있는 의상과 악기의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춤 지도자의 파견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한국춤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IV. 미국에서의 한국춤 전승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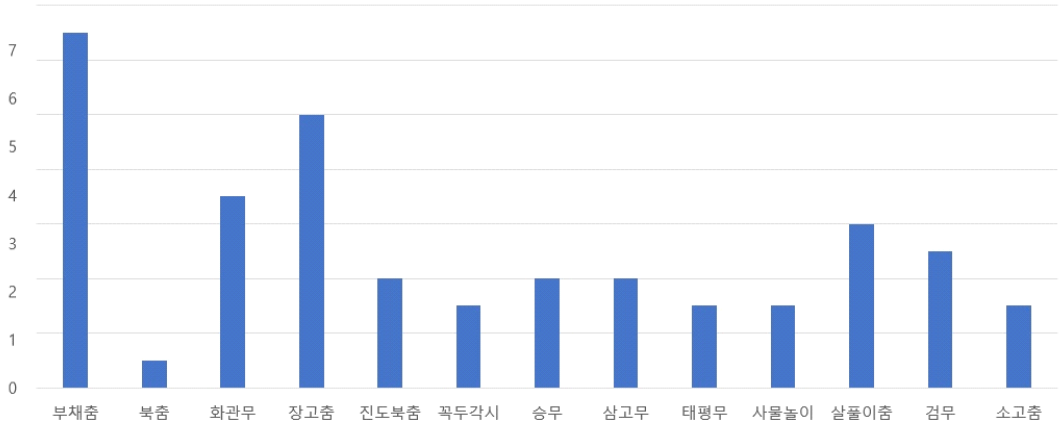
미국사회 한국춤 전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전승주체자가 대부분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춤 전공자라는 것이다. 무용단을 이끄는 단장 김웅화, 최지연, 이애덕, 양현숙, 정혜선, 강은주는 모두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춤 학습의 이력을 바탕으로 소규모 그룹지도,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강습과 지도를 통해 한국춤을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메리조 프레슬리를 제외하면 유년기 시절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속해서 이루어진 이들의 학습 이력은 다양한 유파별 한국춤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메리조 프레슬리는 이주민도, 한국춤 전공자도 아니나 한국에 오가며 김천홍을 비롯한 다양한 유파별 춤 학습에 매진한 그녀의 이력을 감안해 볼 때 한국춤 지도자로서 전문적 경험과 자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무용단체 공연의 춤 종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주로 전통춤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춤 종목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부채춤」, 「장구춤」, 「화관무」, 「살풀이춤」, 「검무」, 「진도북춤」, 「승무」, 「삼고무」, 「꼭두각시」, 「태평무」, 「사물놀이」, 「소고춤」, 「북춤」이 주요 공연 종목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부채춤」(평안남도 3호, 2014)⁸⁾, 「화관무」(이북5, 황해도 4호, 2011), 「살풀이춤」(제97호, 1990), 「검무」(경기 53호), 「진도북춤」(진도북놀이, 전라남도 18호, 1987), 「승무」

8) 무형문화재 춤 종목에서 괄호 안의 내용은 춤 명칭 및 분포지역, 지정 호수, 지정 연도를 표기함.

(27호, 1969), 「태평무」(92호, 1988), 「소고춤」(경기고깔소고춤, 경기 56호, 2025), 「복춤」(날피 복춤, 대구 2호, 1987)은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이다. 춤 종목 중 「부채춤」이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데 「부채춤」은 창작된 신무용으로 궁중의상과 부채를 통해 연출되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로 인하여 관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종목이다. 이외에도 「진도복춤」과 「사물놀이」 등도 타악기의 울림이 주는 장대함으로 다문화 커뮤니티 관련 행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연 종목이다.



〈그림 2〉 한국무용단체 공연 춤 종목

셋째, 미국의 한국춤은 다음 〈그림 3〉에서와 같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을 중심으로 세대별로 살펴보면, 신무용가 배구자(1905-2003)와 근대 이전의 전통양식을 지닌 전통춤 무용가 김천홍(1909-2007)이 1세대라 할 수 있으며, 한영숙(1920-1989), 박금슬(1922-1983), 김백봉(1927-2023), 이매방(1927-2015), 김문숙(1928-2023), 최현(1929-2002), 황무봉(1930-1995)은 2세대로, 그리고 김매자(1943-), 문일지(1946-), 정재만(1948-2014)은 3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배구자의 춤은 배한라와 메리조프레슬리를 통해 하와이의 한국춤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김천홍의 궁중무용은 하와이대학 무용강습회와 한라함 무용연구소를 통해 배한라, 메리조 프레슬리를 비롯한



〈그림 3〉 미국의 한국춤 전승

하와이 한인교민들과 미국인들에게 소개, 전파되면서 한국춤 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 2세대 무용가 한영숙의 춤은 한영숙춤보존회 미국남가주 지회(회장 김응화)와 셋별 한국문화원 최지연을 통해 전수되었으며, 김문숙의 춤은 김응화에게, 그리고 이매방의 춤은 뉴저지 한국전통예술원 정혜선에게 전수되었다. 박금슬, 김백봉, 최현의 전통춤은 셋별한국문화원 최지연, 황무봉의 춤은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 강은주에게 전수되었다. 3세대 무용가 김매자의 춤은 애틀랜타 한국문화원 양현숙과 시카고 한국무용단 이애덕에게 전수되었고 문일지의 춤은 시애틀 셋별 한국문화원 최지연, 정재만의 춤은 애틀랜타 한국문화원 양현숙, 뉴저지 한국전통예술원 정혜선, 그리고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 강은주에게 전수되었다. 이외에도 4세대 무용가로 김명숙(1956-)의 춤이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공연을 통해 소개, 전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미국의 한국춤 전승은 K-컬처(K-culture)의 열기 속에 다문화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춤 관련 단체의 교육과 공연은 이민 2, 3세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아시안 및 코리안커뮤니티 행사, 퍼레이드와 각종 공연, 그리고 미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 명의로 부여되는 공연참가상이나 봉사상은 이민 차세대가 미국 대학 교육기관이나 여타 사회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력으로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한국춤 전승 현황과 특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서부, 중서부, 남부, 그리고 북동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무용단체 지도자들과 심층면담 및 문헌연구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전승 주체자 대부분이 한국에서 한국춤(전통춤과 한국창작춤)을 전공한 이주민이며, 둘째, 공연 종목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춤 종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부채춤」, 「화관무」, 「살풀이춤」, 「검무」, 「진도북춤」, 「승무」, 「태평무」, 「소고춤」, 「북춤」이 주로 공연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삼고무」, 「꼭두각시」, 「사물놀이」가 공연되었다. 이중 부채춤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자주 공연되는 춤이다. 셋째, 한국춤은 배우자, 김천홍, 한영숙, 박금슬, 김백봉, 이매방, 김문숙, 최현, 황무봉, 김매자, 문일지, 정재만 등 여러 세대의 춤이 미국의 한국무용단체를 통해 전수되고 있으며 각 무용단체의 단장들은 전통춤뿐 아니라 전통의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지도하기 위해 한국을 정기적으로 오가며 춤 이력을 확장하고 문화 콘텐츠로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한국춤 전승자들은 한국춤의 지속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다. 2개의 무용단을 제외하고 여타 무용단들은 자체 스튜디오가 아닌 문화원이나 개인 건물에 소속된 작은 홀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임대료를 비롯한 안정적인 무용단 운영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국 교민사회, 혹은 한국 정부산하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연에 필요한 각종 소품이나 의상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의 국, 공립, 및 시립에서 수년간 사용 후 폐기 처분되는 소품이나 의상은 공연부대비비용의 상승과 무료 공연 요구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한국무용단 공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의상이나 소품을 미국 현지 무용단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산하기관 아래에 있는 한국문화 및 춤 관련 단체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행정 처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2014년 해외명예 전승자 지정 및 위촉사항을 참조해 보면 해외명예전승자의 활동으로 세가지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해외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전통무형문화공연 참여 및 전통무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과 각종 심포지엄 등 참여, 그리고 기타 대한민국의 전통 무형문화소개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지원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일회성에 그친, 해외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전통무형문화공연 참여를 제외하면 나머지 여타 지원과 활동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심 역시 전혀 없었다. 이에 문화강국으로서 문화유산의 하나인 한국춤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 양민아(2014). 1920-30년대 러시아 연해주 한인들의 춤 활동. *춤과 지성*, 6, 32-36.
- 김채원(2007). 재인조선인 무용연구-금강산가극단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3, 39-54.
- 김채원(2011). 북한춤의 해외전파: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공연문화학회*, 22, 185-221.
- 안상경, 이병조(2013a).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공동체의 한민족 민속문화 전승 연구-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주 고려인 콜호즈의 민속문화를 중심으로. *슬라브 研究*, 29, 63-97.
- 안상경, 이병조(2013b). 재외동포정책과 러시아 사할린 한인 공동체의 한민족민속문화 전승연구-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 공동체의 민속문화를 중심으로-새로운 전담기구의 모색. *재외한인 연구*, 31, 133-169.
- 양민아(2008).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 속의 한국 전통 춤의 사회적 역할-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15, 1-31.
- 유미희(2015). 미국 서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한국춤전승에 관한 연구. *공연문화연구*, 30, 357-394.
- 유화정(2019). 미국 하와이 주 한라함 무용연구소의 춤문화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9(2), 37-45.
- 이지선(2016). 재일코리안의 한국전통예술 공연양상. *국악원논문집*, 34, 177-242.
- 장윤수(2007). 재외한인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디아스포라 연구*, 2, 165-190.
- 장태한(2021). 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대한민국민회와 <대동단결선언>. *사회과학연구*, 29(1), 128-167.
- 최해리(2004). 현행되는 연변 조선민족무용의 종류와 특징. *무용역사기록학회*, 6, 143-163
- 박재우(2022. 03. 21). 조지아서 한인이 가장 많은 도시는 애틀랜타?. *Atlanta 중앙일보*. <https://www.atlantajoongang.com/31849/>, 2024. 11. 07>.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소개/문무형문화유산소개/무형문화유산-협약/>, 2024. 10. 0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채춤. *encykorea.aks.ac.kr dictionary*.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4576>, 2024. 11. 15>.
- Wikipedia(n.d.). 민속. *Wikipedia, org dictionary*. <<https://ko.wikipedia.org/wiki/민속>, 2024. 10. 29>.

논문투고일 2024. 11. 13.

심사일 2024. 11. 21.

심사완료일 2024. 12. 06.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Dance Transmission in the United States

Yoo, MI-HEE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transmission of Korean dance in the Kore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dwest, South, and Northeast regions, and It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ransmission in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of analyzing seven Korean dance transmission groups, which were sele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transmission subjects are Korean dance majors who completed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dance repertoires performed by Korean dance groups, mainly focused on traditional dances.

Third, it can be seen that Korean dance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the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Keywo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무형문화유산), Korean Dance(한국춤), Korean Dance Group(한국무용단체), Transmission(전승), United States(미국)